

저자 키워드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동향 탐색

서상민(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윤경우(국민대 국제학부)

I. 서론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화되면서 이들 요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의 정책결정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각 국가마다 정책환경이 복잡화되어 가면서 이른바 “정책지식생태계”(Ecosystem of Policy-related Knowledge)에 속한 행위자들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최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역할이 커지면서 국제관계학을 다루는 중국지식인들이 정책좌담회, 정책연구, 논문발표, 정책자문 등을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런 지식인 그룹이 제안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내에서 ‘한중관계’를 연구주제 다룬 논문들의 내용이 한중수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분석대상은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의 키워드이다. 논문의 키워드는 저자가 논문의 핵심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거나 논문이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지식사회에서 학술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분야의 지적 흐름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지식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있다. 따라서 1992-2014년까지 중국의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자키워드의 시기별 특징과 그 연결망을 중국의 외교정책의 주요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사회연결망 분석에서의 키워드 분석

지식생산과 지식의 확산과정을 밝히는 것은 새로운 연구의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연구자의 연구현황 분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활용된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양적 방법 중 하나는 논문의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논문과 논문사이의 관계의 형태를 추적하거나 인용자와 피인용자의 학술영역에서의 소통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 또한 인용관계를 통해 특정 연구자가 생산한 지식을 다른 연구자에게 전달하고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인용은 지식확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²⁾ 그리고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 역시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연구방법이나 주제에 대해 분석에 필요한 기준 하에서 이에 합당한 논문의 빈도수를 양적으로

1) R. E. Rice, C. I. Borgman, B. Reeves, Citation Networks of Communication Journal, 1977~1985: Critiques and Positions, Citations made and Citations Receive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5(2)(1988), pp.265-269

2) 김용학·김영진·김영석, “한국 언론학 분야지식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발표문』 (2006)

계산하여 논문과 논문의 관계를 밝혀내는 방법이다.³⁾ 인용 네트워크 분석이나 내용분석과 함께 지식의 흐름과 확산을 파악하는 또 다른 양적 방법으로는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방법이 있다. 이는 키워드라는 단어와 단어 간, 또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사회연결망분석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링크'(link)를 통해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⁴⁾ 인용분석과 내용분석이 개별 논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키워드라는 매개를 통해 묶여지는 다수의 논문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특정 연구의 흐름과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것은 단지 분석의 방법만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일종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를 개체의 단절성과 고유성만을 강조하는 개체론적 자유주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체이든 개체가 다른 개체와 관계맺음을 통해 형성된 구조적 특성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론적 관점'(relational perspective)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관계론적 세계관은 사회가 개체와 개체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집합적 특징을 넘어서 전혀 다른 사회적 성격과 구조를 구성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가정은 연구공동체 또는 지식사회가 일정한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자 사이의 인과관계나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특정 분야의 지식생산과 확산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이 틀이다. 이는 연구자 개인이나 한 논문만의 관계를 탐색하는 미시적 분석이나 그 연구자나 논문이 어떤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시적 분석을 결합한 '중범위 수준의 분석' 방법론으로써 미시-거시 분석방법으로는 완전히 해석되거나 이해하지 못한 개인과 전체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방법론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먼저 키워드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연구대상이 되는 논문들의 범위를 정한 후 각 논문에서 사용된 저자들의 키워드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한 논문 간의 관계망을 키워드 간 관계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키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구조와 시계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키워드를 통해 특정 분야 지식사회의 연결구조와 키워드의 성장과 소멸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다.⁶⁾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특정 키워드들이 형성한 연구경향과 함께 키워드와 키워드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키워드 특정 연구영역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지를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그 연구영역에서의 연구주제와 중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연구의 흐름과 확산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3) 최영출, 박수정,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2011), pp.123-138.

4) W. Popping,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Sage, 2000.

5) M. Emirbayer,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1997), pp.281-317.

6) 고재창·조근태·조윤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경영의 최근 연구동향", 『지능정보 연구』제19권 제2호(2013.6), pp.101-123

2. 선행연구의 검토

중국 지식사회에서의 한반도 연구 및 한중관계 연구동향에 국내의 연구결과는 많지 않은 편이다. 최근 연구결과 중 특정 학술지의 게재 논문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김종현의 연구가 있다. 김종현은 중국의 『當代亞太』라는 학술지에 2005년부터 2008년 3월까지 게재된 논문 323편을 조사하여 연구대상지역별 논문편수를 산출하고 그 중 한국관련 논문 35편에 대한 분과학문별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국제관계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중관계 및 북핵문제의 민감성이 중국의 한반도 연구영역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연구의 전문학술지인 『韓國研究論叢』의 3권을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하면서 한반도의 외교안보관련 연구의 초점이 동북아 지역이익과 협력관계에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⁷⁾

최근 박동훈의 연구 역시 중국사회과학원이 발간하고 있는 『當代韓國』과 푸단대학 한국연구센터가 발간하는 『韓國研究論叢』이라는 두 학술지에 1996년~2010년까지 게재된 중국학자들의 한국정치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면서 기고자의 특성과 연구영역, 연구주제 등으로 구분하여 논문 수를 계량한 후 이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결과에서 외교안보 관련 연구의 특징으로 중국 학계가 한반도문제와 한중관계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을 주요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⁸⁾

양적 연구는 아니지만 중국학계의 한반도 연구와 관련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한국연구에서의 한반도 인식을 분석하려고 한 시도로 한석희의 연구가 있다. 한석희는 중국 연구자들의 한반도 연구가 한국의 경제발전, 한중관계 발전, 남북한관계 발전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해석하고, 중국의 한반도 연구의 주제가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내에서의 한반도 연구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⁹⁾

그 동안 중국 지식사회에서 한반도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대상 시기에 중국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어떤 비중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연구의 영역과 주제에 대한 비중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연구가 전개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빈도분석과 한정된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분석만으로는 중국 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한반도 연구영역에서의 지식생산과 확산을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분석방법과 대상

1. 키워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데이터 전환

7) 김종현, “중국의 한국연구 동향: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연구에 대하여”, 『한국학연구』제19집(2008.11), pp.225-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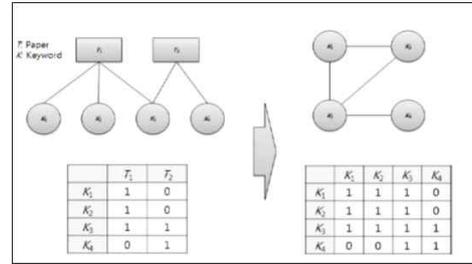
8) 박동훈, “중국에서의 한국정치 연구 동향과 과제: 韓國研究論叢과 當代韓國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제29권 제2호(2013), pp.169-202.

9) 한석희, “중국에서의 한반도 연구: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43집 2호(2003), pp.221-243.

중국 지식사회에서 한중관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논문에 수록된 저자키워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저자가 직접 기입한 키워드는 그 논문의 주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소개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논문과 그 논문의 키워드는 고정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이 논문이 다른 논문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키워드라는 고리를 통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를 사회연결망분석 용어로 해석한다면 논문과 키워드 간에는 2모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를 키워드라는 1모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대 키워드라는 매트릭스로 전환해야 한다. 키워드와 키워드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논문들이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논문들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¹⁰⁾ 단 1회 출현한 키워드는 다른 논문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 편입되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키워드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생성된 키워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연구주제와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키워드 네트워크 변환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대상 추출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CNKI(中國知網)에 수록된 논문들 중 중국사회과학인용색인(CSSCI: 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로 분류된 학술지에서 주제어 검색을 통해 199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중관계’와 관련된 논문을 수집하였다.¹¹⁾ 주제어는 ‘조선핵문제’, ‘조선문제’, ‘북조선’,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반도문제’, ‘한반도통일’ 등이었는데 이렇게 검색된 논문의 수는 <표 1> 과 같이 총 899개였다. 이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한중관계를 다룬 논문만을 추출하였다. 경제, 문화, 사회, 역사, 한국정치 등과 관련된 논문은 연구대상에 제외하였고, 외교안보분야이지만 일본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구 역시 제외한 결과 총 336개의 논문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표 1> 각 주제어별 논문 수

검색어	조선 핵문제	조선 문제	북조선	한중 관계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한반도통일	합계
논문수	237	136	14	186	72	200	54	899

분석대상이 되는 336개의 논문에서의 키워드는 저자가 직접 기입한 키워드로 전혀 가공을

10) Jinho Choi, Sangyoon Yi, Kun Chang Lee, Analysis of Keyword Networks in MIS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Predicting, Knowledge Evolution, *Information & Management* 48(2011), pp.371-381.

11) 中國知網(www.cnki.net)

하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논문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변수와 유사개념을 통합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키워드를 가공하게 된다면 모든 키워드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일 본 연구를 위해 저자키워드를 바꾸게 된다면 본 연구가 시도하려고 하는 중국 지식사회의 한반도 문제 연구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는데 본의 아닌 왜곡이 있을 수 있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가 주관적 판단이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원 저자키워드의 변용없이 처리하였다. 각 논문은 적게는 2개 많게는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336편의 논문에 달리 저자키워드 총수는 1815개였으며, 종류로는 918개로 조사되었다. 이 중 빈도가 큰 키워드 10개는 <표 2>와 같다. 전체 논문 중 ‘朝鮮半島’라는 키워드가 119개로 가장 많았고 ‘中韓關係’가 48개, ‘朝美’가 29개 등으로 출현빈도가 높다.

<표 2> 상위 10위 Keyword

Key word	朝鮮半島	中韓關係	朝美	朝鮮問題	朝鮮核問題	東北亞安全	韓國	六方會談	布什政府	朝鮮
Degree	119	48	29	26	25	19	18	18	16	16

IV. 중국 내 한중관계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1.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

1992~2014년 중국내 저널에 발표된 “한중관계” 논문의 저자키워드들의 집단분석을 하면 <표 3>과 같이 4집단의 키워드 집단이 형성되었다. 전체 키워드 중 약 70.49%가 C1로 분류되었고, C2의 키워드군은 4.92%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키워드 집단인 C1을 대상으로만 분석했는데, 이 집단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밀도는 1.0을 절대값으로 봤을 때, 0.093으로 키워드와 키워드간의 관계가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키워드 중 “朝美”라는 키워드가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의 매개하는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국 내 ‘한중관계’의 연구의 주요 주제와 내용 중 “조선과 미국관계”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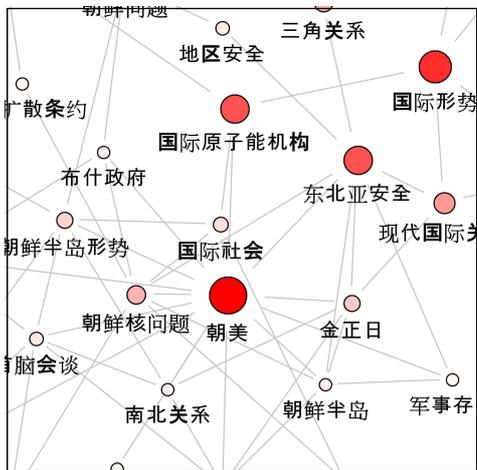
<표 3> 전체 키워드의 집단 분석

COMPONENTS	MEMBERS
C1	朝鮮半島, 金大中, 金泳三, 朝美, 朝鮮半島形勢, 國際社會, 國際關係, 朝鮮核問題, 核不擴散條約, 寧邊, 國際原子能機構, 國際形勢, 中韓, 兩國關係, 中韓關係, 三角關係, 東北亞安全, 軍事存在, 金正日, 南北關係, 首腦會談, 克林頓政府, 輕水反應堆, 外交戰略, 國家利益, 對朝鮮半島政策, 戰略利益, 俄羅斯, 核危機, 布什政府, 朝鮮問題, 地區安全, 現代國際關係, 中國外交, 六方會談, 美朝關係, 朝核問題, 夥伴關係, 地緣政治, 盧武鉉, 韓美關係, 對外政策, 停戰協定
C2	韓國, 中國, 朝鮮
C3	軍事對峙, 經濟合作
C4	冷戰, 美韓同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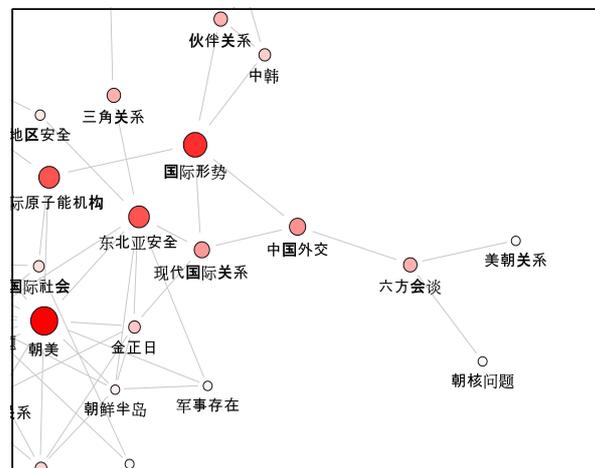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부를 확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朝美’를 중심으로 다른 키워드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朝美’는 ‘東北亞安全’, ‘國際原子能

機構’, ‘南北關係’, ‘朝鮮核問題’ 등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인데, 한반도 연구에 있어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연구의 주요 주제들과 용어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國際形勢’라는 키워드나 ‘現代國際關係’라는 키워드와는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서의 한반도에 관한 연구는 ‘東北亞安全’ 등과 같은 다른 연구주제와 함께 세계정세 연구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맥락이 달라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북한에 변화하기 시작한다. 국제 규범인 핵의 비확산 원칙을 수용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핵문제의 격화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고 중국의 평화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중국 지식사회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동북아안전과 국제관계로의 관심이 전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2> 네트워크 중심부



<그림 3> 중국의외교관련 네트워크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지식사회는 한중관계 연구 속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國際形勢’나 ‘現代國際關係’라는 환경요인과 함께 ‘六方會談’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정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한편 평화발전이라는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한중관계를 동반자관계로 유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이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골간이었으며, 중국의 지식사회 역시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학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¹³⁾

2. 장쩌민 시기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336편 논문의 저자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江泽民 1기는 “核安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防止核扩散”, “國際地位”, “世界情勢” 등의 키워드와 연결되어 연구가 진행된 반면, 2기에 들어서면서 연구영역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9.11 사태를 전후하여 동아시아와 중동 등과 관련된 “地域事務”를 다루는 연구와 함께 김대중-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성명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12) 진창룡,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 진화”, 『2013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화정평화재단 공동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2013),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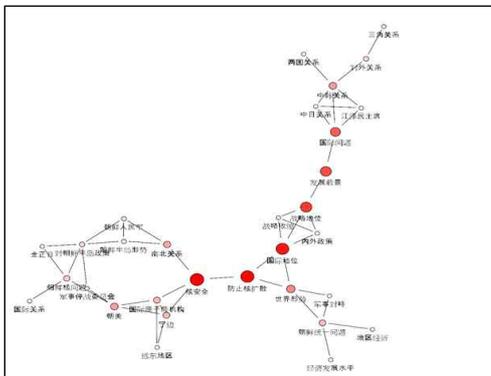
13) 李愼明·王逸舟 主編, 『2004年全球政治与安全报告』,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4), p.117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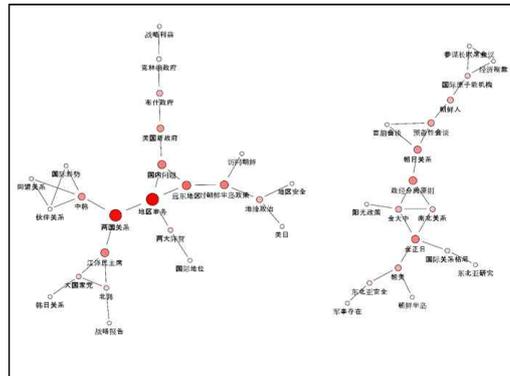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한반도 위기관리 역시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고수해 갔다. 이는 현대 화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변국가와 평화적 환경을 조성이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이었으며, 한반도 문제 역시 이러한 외교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조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과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지식사회의 연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먼저 장쩌민 1기(1993-1997)에 한중관계 연구의 저자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가 중국 학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핵확산 방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한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 나고 있고 동시에 핵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이며, 국제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쩌민 1기의 한반도 연구는 북핵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그리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정립 등과 관련된 연구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그림 4> 장쩌민 1기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5> 장쩌민 2기 키워드 네트워크



그러나 장쩌민 2기(1998-2002)에 들어오면 연구의 영역과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 북핵문제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고수하던 중국정부 보다 앞서 중국의 지식사회에서는 북핵문제를 동북아 안보 문제와 연계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 부시행정부로 바뀌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동북아에서도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반도에 연구 역시 이와 연관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국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 연구 역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체제와 관련된 연구와 한반도 내의 변화에 대한 연구 영역이 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식사회가 외교안보 연구와 관련해 지역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후진타오 시기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장쩌민 2기에 들어서 진행되기 시작한 지역안보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된 연구의 흐

후진타오 2기(2008-2012)에 들어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된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상황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중국 학계의 한반도 연구방향은 북한정권과 동북아 안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북한의 정권교체기의 중국의 인전이익과 안전전략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는데, 이는 네트워크 상에서 북핵위기에 대한 연구 빈도 낮아지고 북미관계가 ‘停戰協定’이나 ‘朝鮮戰爭’과 같은 키워드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정권의 붕괴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정책 관련 싱크탱크와 관련된 연구가 한반도 문제 연구와 함께 부상하고 있었다. 이는 2004년 중국공산당이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표명한 이후 2009년 전직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를 설립하면서 정책연구기관과 정책연구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¹⁵⁾ 2011년 ‘글로벌 싱크탱크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국 지식사회 내에서의 관심이 한반도 연구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모았다.

4. 시진핑 시기의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시진핑 시기(2013-2014)에 발표된 논문의 수는 48편뿐이다. 시진핑 1기가 끝나려면 아직 3년이 남아있다. 따라서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시기의 한반도 연구동향과 단순 비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지식사회에서 한중관계와 관련한 연구의 흐름을 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를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2년 동안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한중관계 연구는 “中韓關係”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 ‘中韓關係’ 키워드는 네트워크 상에서 외곽에 위치 있었고 ‘國家利益’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韓美關係’와 ‘對外政策’ 그리고 ‘李明博’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들어오면서 ‘中韓關係’가 한반도 연구의 중심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2013년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한중미래비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전략적 소통 강화와 전방위적 협력 등을 확대해 가기로 한데 따른 학계의 반응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기의 ‘한중미래비전 공동선언’이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협력, 글로벌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¹⁶⁾ 중국 지식사회 역시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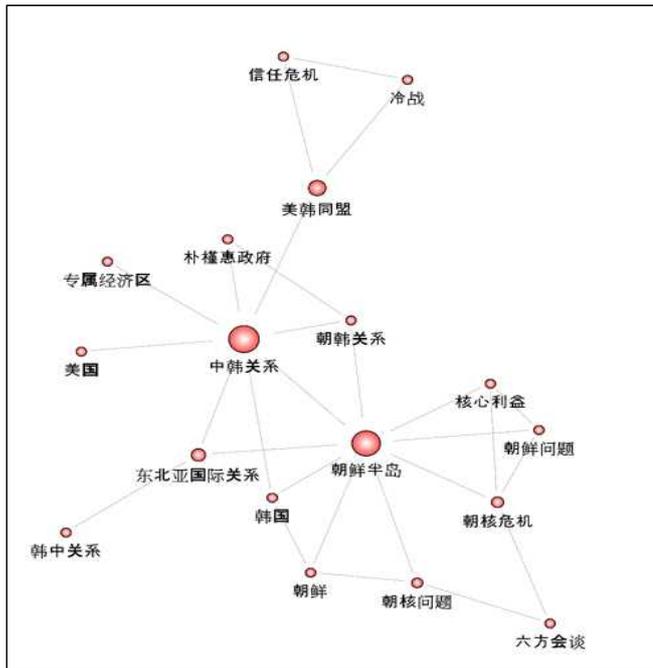
시진핑 시기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특징을 살펴보면, 한중관계 연구는 한중관계 개선 그 자체와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반도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미관계나 중미관계 연구의 연속 상에서 연구하려는 경향이 약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시기 총 키워드 수가 198개인데, 동일한 키워드를 제시한 논문 즉 ‘연결’이 가능한 논문의 키워드는 23개에 지나지 않음. 나머지 175개의 키워드는 논문과 논문을 연결시켜주고 있지 못할 만큼 다양한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亞太戰略’, ‘戰略的 忍耐’, ‘軍事關係’ 등 다른 단독 키워드로 사용되어 다른 논문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15) 劉寧, “智庫的歷史演進, 基本特徵及走向”, 『重慶社會科學』, 總第2008期(2012), 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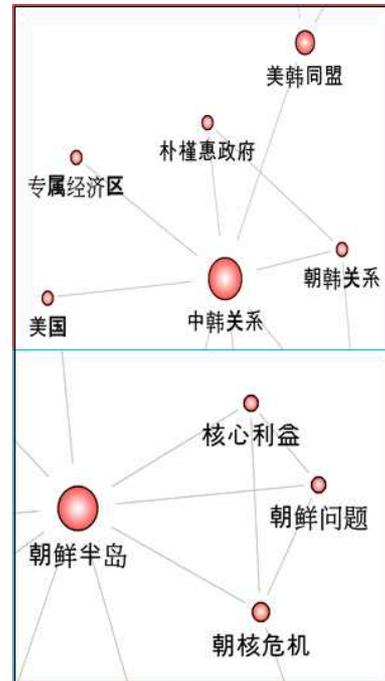
16) 이희욱,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중국학연구』제67집(2014), p.272.

이 시기 네트워크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반도문제와 핵심이익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중관계라는 키워드와 한미동맹의 키워드가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안보전략의 측면에서 북한핵을 인식했던 것에서 북핵문제는 이제 중국의 핵심이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중관계는 한미동맹이라는 동북아국제관계 내에서 풀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8> 시진핑 시기(~2014.2)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9> 세부 네트워크



V. 결론에 대신하여

1992-2014년까지 중국 지식사회에서 “한중관계” 연구의 큰 줄기는 먼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및 중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점차 동아시아지역의 안보 영역으로 주제가 이동하고 이후 중미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거쳐 현재에는 한중관계 개선 및 조선핵문제이라 주제라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볼 때, 중국 내 “한중관계” 연구는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해 지역안보체제를 거쳐 다시 현안문제로 되돌아 온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초반에 한반도문제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던 중미관계라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한중관계” 연구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변화는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사회의 견해를 정책과정에 투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